경우 스님 "신뢰의 종단 구현"

8월 10일, 선거 출마 기자회견
교구법 제정 '공동운영제' 도입
비구니 참여로 평등 승가공동체
승가복지 강화·디지털 혁신 추진
"종교지도자, 도덕성 시비 가려야"

글=임은호 기자 · 사진=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8월 10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계기와 정견을 발표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지낸 경우 스님이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사부대중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우 스님은 8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과 주요 종책을 공개했다. 스님은 먼저 "40여 년 수행자의 길과 종단 내 여러 소임 속에서 종단의 앞날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소임인가를 깊이 배워왔다"며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물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우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로 사회적 갈등과 전쟁·분쟁, 환경과 기아, 디지털 대전환, 청년층의 종교 이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종단은 결코 어제의 자리에 머물 수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전통 수행 가풍의 시대정신화 △교구 중심의 획기적 종단 운영시스템 도입 △디지털 혁신을 통한 AI시대 선도 △불교문화 르네상스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불교 △청년·세계화 △승가복지 강화 △국가와 사회를 잇는 상생의 길 등 8대 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경우 스님이 제시한 종단 운영의 핵심은 '합의와 소통', '신뢰' 그리고 '교구 중심제'다. 스님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신뢰의 종단'"을 새로운 종단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구법' 제정을 통한 교구자치제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교구가 지역의 수행·포교·전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 실현이 핵심이다.

전통 수행 가풍의 현대화도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경우 스님은 "간화선에 기반한 수행 가풍은 조계종의 정체성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적 가치"라며 "모든 스님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문화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 가풍을 국민의 정신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불교 전통문화와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불교 관련 예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종단 소유 유·무형 문화재를 민족의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 확대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경우 스님은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며 전국비구니회와 상시 소통·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비구니스님들의 의견이 종책과 종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구와 비구니가 성별이 아닌 능력과 원력으로 평가받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도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종단의 미래 경쟁력과 존립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고 진단하고, 새로운 집행부에서 행정·교육·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12대 종책공약에는 △수행지원기금 조성 △선원시설 현대화 △간화선 국제센터 설립 △수행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교구법 제정 △종단 통합전산망 구축 △AI 종책위원회와 불교GPT 개발 △AI 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등이 담겼다.

승가복지 강화도 주요 과제다. 권역별 승려전문 요양수행원 설치와 수행연금제 확대, 건강검진, 심리상담센터, 긴급구호 시스템 및 복지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승가를 지키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후보자 도덕성 문제에 대해 "종교지도자, 출가인들에게 도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의혹이 있다면 시비를 가리고 나가야 한다"며 "불교가 사회적 신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경우 스님은 "외부에 비치기에는 안정과 화합 종단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혁 정신이 제자리걸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불교와 종단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광장 회장 사퇴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신설 등이 불교광장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이날 제시한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공동체' 구현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종단 안정과 화합 발전을 위해 회장 소임을 맡았지만 시각과 생각이 구성원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소임을 놓은 상황에서 세세한 얘기는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월 6일 출마를 선언한 정념 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경우 스님 측 선거대책위원장 범해 스님, 선거총괄본부장 자공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스님, 공감과미래 공동대표 보인 스님과 탄원 스님, 공감과미래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선운사 신도들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 "교구와 함께 변화 견인"

8월 11일, 연임 도전 공식 선언
추대제·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편
승려 복지·교구 중심 종단 등 제시
"오직 불교·종단·종도 위해 헌신"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진우 스님이 8월 11일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진우 스님은 '안정에서 도약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8월 11일 발표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고뇌했던 깊은 성찰의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하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때문"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가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임기에 대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원과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왔다"며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과 불교박람회 등 한국불교 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불교는 시대를 따라가는 불교를 넘어 시대를 이끄는 불교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한 진우 스님은 "불교는 더욱 역동적인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임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자리를 지키거나 명예를 더하기 위해 다시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종책으로는 먼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와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의에 맞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의 권익과 종단 내 역할을 확대하고, 출가부터 열반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 완전복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부와 불교사업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한 기본수행비 지원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종단 재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불교문화 콘텐츠 다각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승려복지와 포교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구 중심의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진우 스님은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교구와 함께' 결정하며, '교구와 함께'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선명상 대중화, 승가교육과 수행환경 혁신을 통한 도제 양성, AI와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포교·전법, 사찰숲과 문화유산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행 확대, 남북불교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오직 불교와 종단, 종도와 중생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종회의원 53명 "진우 스님이 적임자"

8월 11일, 공식 지지 선언문 발표
"종단 혁신 위한 검증된 리더십"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진우 스님의 연임을 지지하는 중앙종회의원 53명이 공개적으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진우 스님을 지지하는 종회의원들'은 8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중흥 이끌 진우 스님을 38대 총무원장으로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보여준 성과와 비전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53명은 전체 중앙종회의원의 약 65%에 해당한다.

이들은 "불교중흥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의 체질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종단, 국민에게 박수받는 불교를 이어가려면 진우 스님의 검증된 리더십이 다시 한 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